

# 한국어 ‘먹다’와 중국어 ‘吃(chi)’의 의미 확장 비교

종결(산동사범대)

## <목 차>

- |                                 |                                   |
|---------------------------------|-----------------------------------|
| 1. 문제 제기                        | 3. ‘먹다’와 ‘吃(chi)’의 의미 확장<br>양상 비교 |
| 2. ‘먹다’와 ‘吃(chi)’의 사전적 의미<br>분석 | 3.1 ‘먹다’와 ‘吃(chi)’의 확장 양상         |
| 2.1 ‘먹다’의 사전적 의미 분석             | 3.2 공통적인 의미 확장 양상                 |
| 2.2 ‘吃(chi)’의 사전적 의미 분석         | 3.3 이질적인 의미 확장 양상                 |
| 2.3 ‘먹다’와 ‘吃’의 사전적 의미<br>비교     | 4. 맺음말                            |

## 1. 문제 제기

한 단어가 두 개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을 다의 현상(polysemy)이라고 한다. 또 이러한 다의 현상을 보이는 단어를 다의어(a polysemic word)라고 한다. 다의 현상 및 다의어에 대한 연구는 전통적으로 의미론 연구, 특히 사전 편찬학과 언어 교육에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의미론적 연구 경향을 살펴더라도 구조언어학과 생성언어학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최근의 인지언어학적 관점의 연구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고는 새로운 연구 방법론으로 주목 받고 있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을 통해 다의 현상을 보이는 단어들의 특성이 좀 더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볼 때, 낱말의 의미는 개념화 과정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의현상을 보이는 낱말의 의미가 대개는 원형의미에서 출발하여 은유(Metaphor)와 환유(Metonymy) 등의 일반적 인지원리에 의해 방사성의 망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의 현상 역시 원형과 확장이라는 개념적 확장 원리와 동일한 경로를 가진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사실을, 기능부담량과 사용빈도가 매우 높은 기초 어휘인 한국어 ‘먹다’와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吃’의 의미를 의미 확장 과정을 통해 증명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는 한국어 ‘먹다’와 중국어 ‘吃’의 사전적 의미를 검토하고 비교할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뜻풀이와 함께 직접적인 용례를 분석하여 그 의미의 같고 다름을 판단할 것이다. 3장에서는 상기 의미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어 ‘먹다’와 중국어 ‘吃’의 개별 의미들을 기본적인 원형의미와 확장의미로 나누어 원형의미에서 확장의미로 확장되는 경로를 상호 비교할 것이다. 맺음말에서는 다의 현상 또는 다의어에 대한 의미 분석에 기여한 인지언어학에 대해서 언급할 것이다.

## 2. ‘먹다’와 ‘吃(chi)’의 사전적 의미 분석

‘먹다’나 ‘吃’의 의미는 매우 다양하며 상황에 따라 새로운 의미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는 이들 각각의 포괄적인 의미 파악보다는 두 어휘의 의미 대응에 중점을 두고, 기준이 되는 의미를 확정하여 비교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먼저 한·중 양국의 사전에 기술되어진, 두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sup>1)</sup>

1) 물론 필요할 경우 사전적 의미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의미 기술이 차이 날 경우에는 실제 상황의 의미도 반영하여 살펴볼 것이다.

‘먹다’나 ‘吃’는 모두 실제로 양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초 어휘로서, 이에 대한 사전적 의미도 매우 포괄적이다. 사전에 등재된 이들 어휘의 의미는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는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다의어로 파악되고 있지만 그 다의 현상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본장에서는 먼저 ‘먹다’와 ‘吃’의 사전적 의미를 개별적으로 살펴본 후, 다시 포괄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상기 사전적 의미가 가지는 공통점과 차이점의 분석을 통해, ‘먹다’와 ‘吃’의 기본 의미와 확장 의미를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1. ‘먹다’의 사전적 의미 분석

‘먹다’의 정확한 의미를 추출하기 위해서 먼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전적 의미는 실제 상황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중복된 것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중국어 ‘吃’와의 비교 분석을 위해서는 동일한 비교 기준을 추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사전적 의미에 대해 기술하고 분석해 보고자 한다.

### 2.1.1. ‘먹다’의 사전적 의미

‘먹다’의 사전적 의미는 기본적으로 표준국어대사전(1999)<sup>2)</sup>를 바탕으로 한다.<sup>3)</sup> 『표준』의 ‘먹다’에 대한 사전적 의미 기술과 용례는 다음과 같다.

---

2) 이하 『표준』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3) 그 밖에 『연세한국어사전』이나 『우리말 큰사전』 등도 참조하였다. 『표준』과 이들의 차이에 대하여는 아래 주5-7) 참조.

(1) ‘먹다’의 사전적 의미

먹다 I 【...을】

- ① (음식물) 입을 통하여 배속에 들여보내다. ㉠ 사과를 먹다
- ② 담배나 아편 따위를 피우다. ㉡ 담배를 먹다
- ③ 연기나 가스 따위를 들이 마시다. ㉢ 연탄가스를 먹다
- ④ 어떤 마음이나 감정 따위를 품다. ㉣ 세상 일이란 마음을 먹기에 달려 있다.
- ⑤ 일정한 나이에 이르거나 나이를 더하다. ㉤ 내년이면 삼십을 먹는구나.
- ⑥ 욕, 핀잔 따위를 듣거나 당하다. ㉥ 하루 종일 욕만 되게 먹었네
- ⑦ (속되게) 뇌물을 받아 가지다. ㉦ 뇌물을 먹다
- ⑧ 수익이나 이문을 차지하여 가지다. ㉧ 남은 이익은 모두 네가 먹어라.
- ⑨ 물이나 습기 따위를 빨아 들이다. ㉨ 기름 먹은 종이
- ⑩ 어떤 등급을 차지하거나 점수를 따다. ㉩ 1등을 먹다, 100점을 먹다
- ⑪ 구기경기에서 점수를 잃다. ㉪ 상대방에게 먼저 한 골을 먹었다.
- ⑫ (속되게) 여자의 정조를 유린하다. ㉫ 그는 벌써 여러 여자를 먹었다.
- ⑬ 매 따위를 맞다 ㉬ 상대방의 센 주먹을 먹고 나가 떨어졌다.
- ⑭ 남의 재물을 다루거나 재물을 부당하게 자기의 것으로 만들다 ㉭ 회사 공금을 먹다

먹다 II 【...에】

- ① 날이 있는 도구가 소재를 깎거나 자르거나 갈거나 하는 작용을 하다.  
㉠ 이 고기에는 칼이 잘 먹지 않는다
- ② 바르는 물질이 배어들거나 고루 퍼지다 ㉡ 옷감에 풀이 잘 먹는다
- ③ 벌레, 균 따위가 과 들어가거나 퍼지다 ㉢ 사과에 벌레가 많이 먹었다.
- ④ 돈이나 물자 따위가 들거나 쓰이다. ㉣ 비용이 많이 먹는다.

먹다 III (보조동사)

일부 동사 뒤에서 ‘어 먹다’의 구성으로 쓰이고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그 행동과 관련된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쓴다. ㉠ 약속을 잊어먹다, ㉡ 씨먹다<sup>4)</sup>

4) 본 논문에서 ‘먹다’와 ‘吃’를 대비하기 위해 ‘먹다’의 타동사와 자동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위에 제시된 설명을 보면 ‘먹다’의 사전적 의미에 대한 사전의 처리 방식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먹다’에 대한 사전적 처리를 보면 어떤 사전이든 ‘먹다’의 경우 ‘음식물 따위를 입을 통하여 뱃속으로 들여보내다’를 기본의미로 삼는다고 할 수 있다.<sup>5)</sup> 그런데 ‘먹다’는 기본의미뿐만 아니라, 통사적 기준과 의미적 기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처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준』에서는 이들을 다의어 방식으로 처리하여 기술하는 반면 『연세한국어사전』에서는 동음어로 처리하고 있다.<sup>6)</sup> 이곳에서는 『표준』을 따라 이들의 관계를 다의어로 처리하도록 하겠다.

둘째, 사전에서는 ‘먹다’의 다의적인 의미 양상을 충분히 기술하지 못하고 있다. 『표준』에서 ‘더위를 먹다’의 의미는 기술하지 않고 있다. ‘더위를 먹다’는 『우리말 큰사전』에만 나올 뿐 다른 사전에서는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없다.<sup>7)</sup>

셋째, 사전마다 중복된 의미를 배열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 의미에 적절한 용례가 아닌 경우도 다수 발견된다. 『표준』에서 ‘먹다’ I ⑦(속되게 뇌물을 받아가지다), 과 ‘먹다’ I ⑭(남의 재물을 다루거나 맡은 사람이 그 재물을 부당하게 자기의 것으로 만들다)항목으로 나누고 있지만, 사실은 중복된 의미배열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는 다른 사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 난다.<sup>8)</sup> 그래서 필자는 ‘먹다’ I ⑦과 ⑭는 다음 표1에서 ④를 하나로 묶고자 한다.

5) 『우리말큰사전』, 『연세한국어사전』 등에서도 ‘먹다’의 기본의미는 같다.

6) 특히 『연세한국어사전』은 ‘먹다’도 ‘먹다’와 다른 표제어로 제시하여 동음 관계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sup>1)</sup> 그러나 의미론적 기준을 고려해 보면 이들 의미는 서로 관련성이 있어 보이며, 이들의 관계는 기본 의미와 확장 의미의 상관 관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7) 『표준』에서는 ‘더위를 먹다’는 관용구로 처리된다. 외국인으로서 관용구와 사전에 등재되어야 하는 의미와 구별 잘 못한다. 여기서는 『표준』에 따르기로 한다.

8) 『우리말 큰사전』에서도 ‘액체를 빨아들이다.’의 용례로 ‘물 먹은 놈’이 보이는데, 이는 부적절한 용례로 사용된 경우이다.

## 2.1.2. ‘먹다’의 의미 재분류

앞 절에서 살펴본 ‘먹다’의 사전적 의미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여기서는 ‘먹다’의 의미를 기준에 따라 재분류하기로 한다. ‘먹다’의 의미 분류를 위해, 본고에서는 [±어휘성], [±타동성], [±유정성], [±능동성], [±구체성] 등의 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

[±어휘성]이란 ‘먹다’가 어휘 의미를 가지는가 아니면 다른 동사 뒤에서 보조 동사로 쓰여 문법적인 기능을 나타내는가에 따른 특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 ‘밥을 먹다’의 ‘먹다’는 [+어휘성]을 보이지만 ‘잊어 먹다’, ‘찌 먹다’의 ‘먹다’는 [-어휘성]을 보인다. 이에 따르면 위 (1)의 ‘먹다Ⅰ’과 ‘먹다Ⅱ’에 속하는 경우는 모두 [+어휘성]을 가지지만 ‘먹다Ⅲ’에 속하는 경우는 [-어휘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타동성]이란 ‘먹다’의 의미가 목적어를 전제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목적어를 상정할 수 없는지를 고려한 기준이다. ‘먹다’의 의미는 대부분 [+타동성]을 보이지만 [-타동성], [+자동성]인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밥을 먹다’는 [+타동성]을 보이지만 ‘이 고기에는 칼이 잘 안 먹는다’에서 [-타동성]을 보인다.

[±유정성]은 ‘먹다’의 동작이 행하는 주체 즉, 주어의 사람이냐 아닌가에 따라 구분하는 기준이다. 예를 들어 ‘밥을 먹다’의 동작의 주체는 대부분은 [+유정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기름을 먹은 종이’에서는 [-유정성]을 가진다.

[±능동성]이란 동사 ‘먹다’가 행하는 동작이 능동적으로 이루어 지는지, 아니면 피동적으로 이루어 지는지에 따른 분류 기준이다. 예를 들어 ‘밥을 먹다’는 [+능동성]을 보이고 ‘육을 먹다’는 [-피동성]을 보인다.

[±구체성]이란 동사 ‘먹다’와 결합하는 목적어가 구체적인 것인가, 아닌가에 따른 분류 기준이다. 예를 들어 ‘밥을 먹다’의 ‘밥’은 구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나이를 먹다’의 ‘나이’는 추상적 의미를 지닌 목적어라고 할 수 있다.9)

위의 기준에 따라 ‘먹다’의 사전적 의미를 다시 분류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1. ‘먹다’의 사전적 의미 분류

분류	분류		의미	예문
	+어휘성	-어휘성		
[+어휘성]	[+어휘성]	[+어휘성]	① (음식물을) 입을 통하여 배속에 들여 보낸다.	사과를 먹다
			② 답배다. 아편 따위를 피우다.	답배를 먹다
			③ 연기나 가스 따위를 들이 마시다.	가스를 먹다
			④ 남의 재물을 다루거나 재물을 부당하게 자기의 것으로 만들다.	죄물을 먹다, 회사 공금을 먹다
			⑤ 어떤 마음이나 감정 따위를 품다.	마음을 먹다
			⑥ 일정한 나이에 이르거나 나이를 더하다.	네 살 먹다
	[+어휘성]	[+어휘성]	⑦ 어떤 등급을 차지하거나 점수를 따다.	1등을 먹다
			⑧ 수익이나 이문을 차지하여 가지다.	이익을 먹다
			⑨ (속되게) 여자의 정조를 유린하다.	여자를 먹다
			⑩ 욕, 편찬 따위를 듣거나 당하다.	욕을 먹다
			⑪ 구기경기에서 점수를 잃다.	상대편에게 한 골을 먹다
			⑫ 매 따위를 맞다	센 주먹을 먹다
	⑬ 입거나 당하다	충격을 먹다		
	[+어휘성]	[+어휘성]	⑭ 물이나 습기 따위를 빨아들이다.	기름 먹은 종이
			[+어휘성]	① 날이 있는 도구가 소재를 깎거나 자르거나 갈거나 하는 작용을 하다
② 바르는 물질이 배어들거나 퍼지다				꽃감에 풀이 잘 먹는다.
③ 벌레, 균 따위가 파 들어가다	사과에 벌레가 많이 먹는다.			
④ 돈이나 물자 따위가 들다	비용이 많이 먹다			
[-어휘성]	[-어휘성]	① 일부 동사 뒤에서 ‘어 먹다’의 구성으로 쓰고 주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쓴다	써먹다, 잊어먹다	

9) ‘여자를 먹다’, ‘욕을 먹다’, ‘뇌물을 먹다’ 중에 ‘여자, 욕, 뇌물’ 같은 것은 구체적 명사이지만 여기서 비유적으로 쓰이므로 추상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 2.2. ‘吃(chi)’의 사전적인 의미 분석

‘吃’의 의미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우선 사전적 의미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에 ‘먹다’의 사전적 의미의 분류 방식과 같이 ‘吃’의 사전적 의미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吃’의 의미를 분석은 『現代漢語詞典』(2005)<sup>10)</sup>의 ‘吃’에 대한 기술을 중심으로 하고, 『現代漢語八百詞』<sup>11)</sup>와 『中國漢語水平考試詞匯大綱 漢語8000詞詞典』을 참조하고자 한다. 먼저 『現漢』의 ‘吃’에 대한 의미 기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sup>12)</sup>

### 2.2.1. ‘吃’의 사전적 의미

‘吃’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現代漢語詞典>를 바탕으로 한다.

#### (3) ‘吃’의 사전적 의미

##### ‘吃’ I

- ① 把食物等放進嘴里經過咀嚼咽下去(包括吸, 喝) ㉠ 吃飯, 吃藥  
(음식물을) 입을 통하여 배속에 들여보내다 (‘마시다, 흡입하다’ 포함)  
㉡ 밥을 먹다, 약을 먹다 )
- ② 依靠某種事物來生活 ㉢ 吃老本, 靠山吃山, 靠水吃水  
(...에 의거하여 생활하다 ㉣ 밑천을 먹다, 산을 먹다, 물을 먹다)
- ③ 吸收(液體), 道林紙不吃墨。  
(흡수하다(액체), ㉤ 도립종이는 잉크를 잘 안 먹는다.)
- ④ 消滅(多用於軍事, 棋戲), ㉥ 吃掉敵人一個團, 拿車吃他的炮  
(소멸시키다(군사나, 장기, 바둑에서 많이 사용됨) ㉦ 적 한 무리를 먹어버리다, 車로써 그의 炮를 먹다)

10) 『現代漢語詞典』(第5版, 2005年, 商務印書館)은 발행량이 가장 크고 권위적인 사전이고 여기서 이 사전을 위주로 하여 이하 『現漢』으로 적기로 한다.

11) 이하 <現代漢語八百詞>는 <八百詞>로, <中國漢語水平考試詞匯大綱 漢語8000詞詞典>는 『8000詞詞典』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12) 논의의 편의를 위해 사전적 의미 뒤에 한국어 해석을 제시하기로 하겠다.

- ⑤ 承受, 禁受, ㄹ 吃得消, 吃不住  
(견디다/ 감당하다 ㄹ 먹어서 소화할 수 있다, 먹을 수 없다.)
- ⑥ 挨, 受 ㄹ 吃亏, 吃惊, 吃批評  
(당하거나 맞다 ㄹ 손해를 먹다, 놀라움을 먹다, 비평을 먹다)
- ⑦ 耗費, ㄹ 吃力,  
(소모하다 ㄹ 힘을 먹다, )
- ⑧ 被 (多見于早期白話文) 吃他耻笑  
(괴동을 나타내다, (옛날에 많이 쓰임) 그의 비웃음을 먹다)  
'吃'Ⅱ
- ① 口吃, 結巴, ㄹ 她有口吃症<sup>13)</sup>  
(말을 더듬다. ㄹ 그녀는 말을 먹는다.)

‘먹다’와 마찬가지로 ‘吃’의 의미에 대한 사전의 분류 방식에서도 몇 가지 문제점을 찾아 볼 수 있다.

각 사전에서 ‘吃’의 의미에 대한 기술도 동일하지 않고, 사전마다 확실한 기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우선, 『現漢』에서 ‘吃’의 의미를 여덟 가지로 기술하고 있으며, ‘吃1’와 ‘吃2’는 『現漢』에서 동음이의어로 기술하고 있다.<sup>14)</sup>

각 사전에서 의미를 처리할 때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 『漢語8000語詞典』에서 ‘吃’의 기본의미에서 환유로 거쳐 파생된 의미 ‘吃食堂, 吃大碗儿’를 각각 하나의 의미항으로 따로 분류하고 있지만, 『八百詞』와 『現漢』에서는 별도의 의미항으로 취급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기본의미에서 환유를 통해 다른 의미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된다.<sup>15)</sup> <現漢>에서

- 13) 본 문에서 ‘먹다’와 비교하기 위해 ‘吃2’를 의미를 논하지 않기로 한다.
- 14) 『漢語8000語詞典』와 『八百詞』에서는 ‘吃2 口吃, 結巴’ 의미를 보이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상기 세 사전의 분류를 종합하여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八百詞』에서 ‘吃’를 7가지 의미로 분류하였는데 주로 통사적 관계를 많이 규명해서 의미를 분류하였다.
- 15) 『八百詞』에서 ‘表示一个物体插入或者切入另一个物体(한 물체가 다른 물체의 속으로 들어가 있다)’의 의미를 별개의 의미항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다른 사전에서는 이러한 분류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의미는 상기 ‘吃’의 어떠한 의미항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따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八百詞』에서 ‘상대방의 뜻을 이해하거나 파악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吃’를 독립된 의미항으로 취급하였는데 필자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⑤承受, 禁受 (견디다, 감당하다)와 ‘接受, 認可(승인하다, 받아들이다)’는 의미를 하나로 묶었지만, 그 의미가 서로 다르므로 나누어서 기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표2에서는 ④와 ⑧를 따로 기술하고자 한다. 상기 분류한 사전적 의미를 종합하여 다음 절에서 ‘吃’의 의미를 다시 분류하기로 하겠다.

### 2.2.2. ‘吃’의 의미 재분류

‘吃’의 의미를 분류하기 위해서 ‘먹다’의 의미를 분류했던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겠으나, 한국어 ‘먹다’와 ‘吃’의 의미 기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미 분석의 기준들도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 앞 2.1.2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의미 분류 기준에는 [+어휘성], [+타동성], [+유정성], [+구체성], [+능동성]이 있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어휘성], [+타동성]의 기준은 ‘吃’의 의미를 분류하는 특별한 변별적 기능을 가지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한국어 ‘먹다’와 달리 중국어 ‘吃’는, 모든 의미 사용에 있어서 언제나 [+어휘성], [+타동성]의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어 ‘吃’가 보조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없고, 목적어를 수반하지 않는 자동사적 용법으로 사용되기도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吃’의 의미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기준 [+유정성], [+구체성], [+능동성]을 적용하기로 한다.

[+유정성] 기준에 따르면 ① ‘吃飯의 동작주는 사람 즉, [+유정성을 가지며, ⑫ ‘小白菜很吃油’에서는 [-유정성을 가진다. [+구체성] 기준에 따르면 먹는 목적어가 구체적인 것인 경우에 ① ‘吃飯’은 [+구체성]을 가지며, ④ ‘吃軟不吃硬’은 [-구체성]을 나타낸다. 즉, 추상적인 목적어라고 할 수 있겠다. [+능동성은 먹는 동작이 스스로 행하는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분류하는 기준이다. 예를 들어 ②‘吃老本’은 능동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능동성]을 지니고, ⑩‘吃亏’는 피동적으로 어떤 일을 당하는 뜻이므로 [-능동성], 즉 [피동성]을 지닌다.

‘吃’를 위와 같은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재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2. '吃'의 의미 재분류

분 류			의 미	예 문
+유정성	+아미성	+구체성		
[+유정성]	[+아미성]	[+구체성]	①把食物等放進嘴里經過咀嚼咽下去(包括吸,喝)먹다, 마시다.	吃藥, 吃飯 약을 먹다, 밥을 먹다,
		[-구체성]	②依靠斯事物來生活.에 의거하여 생활하다	靠山吃山,靠水吃水 산을 먹다, (산을 낀 곳에서 산을 뜯어먹다) 吃老本, 밑천을 먹다(밑천을 까 먹다)
			③表示方式或者工具 (어떤 방식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먹다) 사 먹다, 에서 먹다	吃食堂, 吃大碗 식당을 먹다, 큰 그릇을 먹다 (식당에서 사먹다, 큰 그릇으로 먹다)
			④接受,認可 (받아들이다, 넘어가다)	吃軟不吃硬연한 것 먹고 편편한 것 안 먹다 (칭찬만 받고 비평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吃賄賂, 뇌물을 먹다,
			⑤領會, 把握 (이해하거나 파악하다)	吃不准他的意思 무슨 뜻을 먹지 못하다 무슨 뜻인지 파악하지 못한다
			⑥消滅(소멸하다, 없애다)	吃掉敵人一個團 적군 한 무리를 먹다
			⑦承受, 禁受(견디다, 감당하다)	吃苦 고생을 먹다
	[-아미성]	[-구체성]	⑧耗費(힘 따위를 들이다)	吃力 힘을 먹다
			⑨受, 挨(당하거나 맞다)	吃亏, 吃驚, 吃鴉蛋, 손해를 먹다, 놀라움을 먹다, 0점을 먹다
			⑩表示某物体切入另一物体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들어가다)	船身吃水米 배 몸이 물을 먹다
[+유정성]	[+아미성]	[+구체성]	⑪吸收(液体)(흡수하다(액체))	小白菜很吃油 배추 기름을 많이 먹는다.

## 2.3. ‘먹다’와 ‘吃’의 사전적 의미 비교

앞에서 사전의미에 대한 재분류를 통하여 ‘먹다’와 ‘吃’의 사전적 의미를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먹다’와 ‘吃’의 분류에 있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앞 절의 (2)과 (4)을 바탕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2.3.1. ‘먹다’와 ‘吃’ 공통적 의미

앞선 기술을 통해 ‘먹다’와 ‘吃’는 모두 ‘음식물을 뱃속에 보내 들이다’는 기본 의미로 취급한다. ‘먹다’는 ‘남의 재물을 다루거나 부당하게 자기의 것으로 만들다’는 의미와 ‘먹다’ ⑧번 의미 ‘수익이나 이문을 차지하여 가지다’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것은 ‘吃’의 ④ ‘받아들이다’ 한 가지 의미로 취급한다.

(5) 뇌물을 먹다 => 吃賄賂

남은 이익을 너 먹어라. => 這次利益中, 他吃了大頭兒.

‘먹다’와 ‘吃’의 기본의미는 능동적으로 행하는 의미로 인식할 수 있으면 어떤 행위를 피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의미도 있다. ‘먹다’는 [-능동성]과 [+추상성]을 지니고 있는 의미를 ⑩ ‘욕, 핀잔, 따위를 듣거나 당하다’, ⑫ ‘매 따위를 맞다’, ⑬ ‘입거나 당하다’ 등으로 상세하게 분류해 놓은 반면, ‘吃’는 한가지 의미 즉, ‘맞거나 당하다’로 분류한 것을 알 수 있다.

(6) 하루 종일 욕만 먹었다. => 一天到晚一直在吃罵. 상대방한테 주먹을 먹었다. => 吃了對方一頓揍.

상대편한테 골을 하나 먹었다. => 吃了對方一個球. 충격을 먹다, 겁을 먹다 => 吃驚, 吃怕

상기 기술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제시한다.

표3. ‘먹다’와 ‘吃’의 공통적 의미

먹다					吃					
+어휘성	+타동성	+유정성	+구체성	+능동성	의미분류	예문	의미분류	예문		
+	+	+	+	+	① (음식물을) 입을 통하여 배속에 들여보낸다.	사과를 먹다	① 把食物等放進嘴里經過咀嚼咽下去(包)括, 吸, 喝) 먹다, 마시다.	吃飯 먹다		
					② 담배, 아편을 피우다	담배를 먹다	① 위와 같음	吃烟 담배를 먹다		
			+	1	+	1	④ 남의 재물을 부당하게 차지하거나 다루다	뇌물을 먹다 궁금을 먹다	④ 接受, 認可,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吃賄賂 뇌물을 먹다 吃利 킴(利息)을 먹다⑤
							⑧ 수익따위를 차지하여가자다.	남은 이익을 먹다		
							⑩ 욕, 편견 따위를 늘거나 당하다	욕을 먹다	⑨ 受, 挨 당하거나 맞다	吃罵 욕을 먹다
			+	1	+	1	⑪ 구기경기에서 점수를 잃다	상대편에게 한골을 먹다	⑥ 消滅 소멸하다, 없애다	吃掉敵人 一个團 一个 한 무리를 애머리다
							⑫ 매 따위를 맞다.	주먹을 먹다	⑨ 受, 挨 당하거나 맞다	吃一頓揍 먹다
							⑬ 입거나 당하다	짐을 먹다		吃驚 충격을 먹다
			1	+	+	+	⑭ 물이나 습기 따위를 빨아들이다	기름 먹은 종이	⑪ (액체) 가 흡수하다	小白菜很吃油. 기름이 많은 배추는 많이 먹는다

### 2.3.2. ‘먹다’에만 있는 의미

앞 절의 (2)과 (4)의 ‘먹다’와 ‘吃’의 비교를 통해 [-어휘성]과 [+자동성]은 ‘먹다’에만 보이고, 반대로 [+어휘성]과 [+타동성]은 ‘吃’에만 보이는 특성임을 알 수 있었다. 보조동사로서의 ‘먹다’는 일부 동사 뒤에 쓰여 ‘-어 먹다’ 형식으로 쓰일 수 있지만, ‘吃’은 이러한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또한 ‘먹다’ ①, ②, ③, ④의 자동사의 기능은 ‘먹다’에만 보이고, ‘吃’에는 보이지 않는 의미항이다. ‘먹다’는 일부 동사 뒤에서 ‘먹다’ ①에서처럼 ‘어 먹다’의 형식으로 주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사용되며, ‘먹다’의 어휘적 의미가 약화되고, 주로 문법적 보충의미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8) ㄱ. 배운 내용을 자주 씌먹으면 이해가 잘 돼요. 要經常運用 / \*用吃學過的内容, 就會消化的很好。

ㄴ. 미안해요, 이 일을 잊어먹었어요. 對不起, 把這個事情給忘了 / \*忘吃了。

[타동성] ‘먹다’의 의미로는 ① 날이 있는 도구가 소재를 깎거나 자르거나 갈거나 하는 작용을 하다, ② 바르는 물질이 배어들거나 퍼지다, ③ 벌레, 균 따위가 파 들어가다, ④ 돈이나 물자 따위가 들다’등이 있으며, 이것은 ‘吃’에는 없는 의미이다.

(9) 이 고기에는 칼이 잘 안 먹는다. 這刀不好切肉 / \*吃肉

이번 공사는 비용이 많이 먹었어요. 這次工程花費了很多錢 / \*吃了很多錢。

[추상성], [+능동성]의 기준으로 살펴볼때, ⑤ ‘어떤 마음이나 감정을 품

---

16) ‘먹다’는 ④과 ⑧는 각각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로 나누어서 기술하는데 ‘吃’는 나누지 않다. ⑩, ⑫, ⑬도 마찬가지다.

다, ⑥ ‘나이에 이르거나 더하다’, ⑦ ‘등급을 차지하거나 점수를 따다’는 ‘먹다’에만 있는 의미이다.

(10) 세상일이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世界上的很多事情都是事在人爲/ \*吃心。

표4.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먹다						
+- 어 휘 성	+- 타 동 성	+- 유 정 성	+- 구 체 성	+- 능 동 성	의미분류	예문
+	+	+	-	+	⑤ 어떤 마음이나 감정을 품다	마음 먹다, 양심 먹다
					⑥ 나이에 이르거나 더하다	네 살을 먹다
				⑦ 등급을 차지하거나 점수를 따다	일등을 먹다	
				⑧ (속되게) 여자의 정조를 유린하다.	여자를 먹다	
	-	-	-	+	⑬ 날이 있는 도구가 소재를 깎거나 자르거나 갈거나 하는 작용을 하다	이 고기에는 칼이 잘 안 먹는다
					⑭ 바르는 물질이 배어들거나 퍼지다	웃감에풀이 잘 먹는다
					⑮ 벌레, 균 따위가 과 들어 가다	사과에 벌레가 많이 먹는다
					⑯ 돈이나 물자 따위가 들다	비용이 많이 먹다
-	-	-	-	-	⑰ 일부 동사 뒤에서 ‘어 먹다’의 구성으로 쓰고주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쓴다	써먹다, 있어먹다

### 2.3.3. ‘吃’에만 있는 의미

‘吃’는 뒤에 오는 목적어가 주로 은유나 환유를 거쳐 생기는 의미 즉, ②, ③으로, 주로 ‘먹는 방식이나 수단’을 나타내며, ‘먹다’에는 이런 표현방식이 없다. ‘食堂’은 ‘吃’의 목적어가 아니라, 먹는 수단과 방식으로 먹는 대상을 환유한 것이고, ‘軟’와 ‘硬’는 각각 ‘칭찬’과 ‘비평’을 비유한 것으로 은유법을 썼다.

- (11) 吃食堂, 吃大碗儿 \* 식당을 먹다, 큰 그릇을 먹다 => 식당에서 사먹다, 큰 그릇으로 먹다  
吃軟不吃硬 \* 연한 것을 먹고 딱딱한 것을 먹지 않는다. => 칭찬을 받고 비평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吃’는 목적어가 구체적인 실물이 아니고 추상적인 목적어인 경우, ‘먹다’와는 달리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意思’는 직접 먹을 수 없는 대상이지만 은유를 통해 ‘뜻을 파악하다’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힘’ 따위가 목적어 될 경우에도 어떤 일을 할 때, 힘을 들인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 (12) 吃不准他的意思 \* 무슨 뜻인지 먹지 못한다. => 무슨 뜻인지 파악하지 못한다.  
他做這个工作有些吃力。\*그분은 이 일에 힘을 먹는 것 같아요. => 그분은 이 일이 힘든 것 같아요.

‘먹다’와 비교하면 ‘吃’는 [+무정물을 많이 보이긴 않지만 ‘吃’만 가지는 의미도 있다. ‘吃’ ①의 의미는 특정한 의미만 나타내므로 ‘먹다’와 대응되지 않는다.

- (13) 船身吃水1米。\* 배몸은 물을 1미터를 먹었다. => 배몸은 물속에서 1미터 들어간다.

표5.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吃						
+어휘성	+타동성	+유정성	+구체성	+이동성	의미분류	예문
+	+				② 依靠某种事物來生活에 의거하여 살다	吃老本(밑천을) 까 먹다
					③ 表示方式或者工具 (어떤 방식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먹다)사먹다, 예서 먹다	吃食堂, 吃大碗儿
					④ 接受,認可 (받아들이다, 넘어가다)	吃軟不吃硬
					⑥ 領會, 把握 (이해하거나 파악하다)	吃不准他的意思 무슨 뜻인지 파악하지 못한다
					⑦ 耗費 ((힘) 들이다)	吃力 힘 들이다
					⑧ 承受, 禁受 (견디다, 감당하다)	吃苦 고생을 하다
		1	+	+	⑪表示某物体切入另一物体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들어가다)	船身吃水1米 배몸은 물속에 1미터 들어간다.

### 3. ‘먹다’와 ‘吃(chi)’의 의미 확장 양상 비교

앞장에서 우리는 ‘먹다’와 ‘吃’의 사전적 의미를 재분류하였다. 그 과정을 통하여 한국어 ‘먹다’와 중국어 ‘吃’가 모두 기본적인 의미에서 많은 확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확장 양상에 관여하는 기본적인 원리나 규칙을 추출하고 이들의 적용 양상을 살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어 ‘먹다’와 중국어 ‘吃’의 의미 확장 양상에 대한 비교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3.1. ‘먹다’와 ‘吃(chi)’의 확장 양상

‘먹다’와 ‘吃’의 사전적 의미에 대한 검토를 통해 두 단어의 의미가 인지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확장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sup>17)</sup> 인간은 비슷한 인지 유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먹다’와 중국어 ‘吃’의 대응되는 많은 다의어의 경우에도 비슷한 인지 작용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비록 비슷한 기본 의미 또는 원형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사용되는 사회문화적인 환경이나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주변 의미나 확대 의미가 다를 수 있고 그 확장 양상 역시 다를 수 있다. 이는 서로 다른 언어 간에 다의어의 의미가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sup>18)</sup> 본장에서는 이와 같은 생각을 토대로 한국어 ‘먹다’와 중국어 ‘吃’의 확장이 어떤 양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먼저 임지룡(1996)의 의미 확장 양상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임지룡(1996)은 Heine 외(1991)에서 제시한 다음 (14)과 의미 확장 원리를 적용하여 국어의 어휘 의미 확장 양상을 (15)처럼 이를 좀 더 자세하게 분류하였다.

(14) Heine(1991)의 의미 확장 양상

PERSON>OBJECT>ACTIVITY>SPACE>TIME>QUALITY

(사람 > 대상 > 활동 > 공간 > 시간 > 질)

(15) 임지룡(1996)의 어휘 의미 확장 양상

ㄱ. 사람→짐승→생물→무생물

ㄴ. 구체성→추상성

ㄷ. 공간→시간→추상

ㄹ. 물리적→사회적 →심리적

17) 사전적 의미의 확대 양상에 대하여는 앞 2.1 참조.

18) 趙艷芳(1999), 『認知語言學概論』, 上海外語教育出版社.

- ㄷ. 일반성→ 비유성→ 관용성
- ㄸ. 내용어→ 기능어

특히 (15)에서 제시한 의미 확장 양상은 국어의 어휘 의미 확장에 전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느 경우이나 정확하게 맞지는 않는다. 대상 어휘에 따라 어떤 것은 비교적 동일한 확장 양상을 보이지만, 또 어떤 경우는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어휘 의미의 확장 양상을 설명하는 데 부족하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한국어 ‘먹다’와 ‘屹’의 경우도 대부분은 위에서 제시한 경로를 따라 의미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떤 경우는 위의 경로만으로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15ㄴ)의 경우 ‘먹다’와 ‘屹’가 다른 양상을 보이며<sup>19)</sup>, 위에서는 제시되고 있지 않지만 해당 의미가 ‘능동성’을 띠고 있느냐, 아니면 ‘피동성’을 띠고 있느냐 하는 점은 ‘먹다’나 ‘屹’의 의미 확장 양상을 설명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먹다’와 ‘屹’의 의미 확장 양상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6) ‘먹다’와 ‘屹’의 의미 확장 양상

- ㄱ. 사람→ 짐승→생물→무생물
- ㄴ. 구체성→추상성
- ㄷ.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 ㄹ. 일반성→ 비유성→ 관용성
- ㅁ. 능동성→피동성
- ㅂ. 공간→시간
- ㅅ. 내용어→ 기능어
- ㅆ. 타동성→ 자동성

위에서 제시한 여덟 가지 확장양상중에 ‘ㄱ~ㄹ’은 임지룡(1996)의 이론을 따르고, ‘ㅁ~ㅆ’은 필자가 ‘먹다’와 ‘屹’에 제시한 확장양상이다. 우선, ‘ㅁ~ㅆ’의

19)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해당 부분 참조.

확장양상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16口)는 ‘먹다’나 ‘吃’에 적용한 확장양상이다. ‘사과를 먹다/ 吃苹果는 행위자 스스로 행한 동작이지만 ‘육을 먹다/ 吃罵는 행위자가 동작을 당하는 피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임지룡(1996)의 ‘공간→시간→추상’의 확장 기준점은 ‘공간’인데, 이는 우리가 가장 쉽게 지각할 수 있는 범주이며, 이를 바탕으로 시간성, 추상성으로 진행된다. ‘짧다’라는 낱말은 ‘길이’의 척도인 ‘연필이 짧다’에서 ‘시간이 짧다’, ‘경험이 짧다’등으로 확장되는 양상인데, ‘먹다’로 적용할 때, ‘공간→시간→추상’를 적용하지 않고, ‘공간→시간’만 적용한다. ‘밥을 먹다’라는 것은 음식물이 밖에서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공간적 이동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나이를 먹다’는 시간적 누적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먹다’는 타동사, 자동사, 보조동사로 쓰일 수 있으므로 ‘내용어→기능어’와 ‘타동성→자동성’을 보이고 지만, ‘吃’는 타동사로만 쓰이고 이 두 가지 확장양상은 적용하지 않는다.

위에서 제시한 여덟 가지 확장양상은 ‘먹다’나 ‘吃’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ㄱ~ㄴ’은 공통적 확장양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ㄷ~ㅈ’은 ‘먹다’에만 적용되고, ‘吃’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질적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먹다’와 ‘吃’는 ‘ㄱ~ㄴ’의 공통적 확장양상을 보이지만, 확장된 의미는 공통적일 수도 있고, 이질적일 수도 있다. ‘ㄷ~ㅈ’은 ‘먹다’에만 적용되는 확장양상이기 때문에 이질적 의미만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다음 절에서 좀더 자세하게 분석하기로 하겠다.

### 3.2. 공통적인 확장 양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먹다’와 ‘吃’의 기본의미는 다 ‘입을 통하여 음식물을 뱃속으로 들여보내다’이다. 위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확장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의미들이 확장되어진다. 두 나라의 언어, 문화의 차이에 따라 확장의 의미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먼저 두 단어의 같은 확장 경로를 살펴본다.

(16ㄱ)의 의미 확장 양상은 동사 ‘먹다’와 ‘吃’의 원형 의미와 관련되는 것인데, 이들은 모두 ‘입에서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몸속에 들어 보내 다라’는 원형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 의미는 이런 동작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서로 다른 확장 의미를 가진다. 다음은 이와 같은 확대의 경로를 보여 주는 예이다.

- (17) ㄱ. 나는 밥을 먹는다. / 我吃飯。 => 사람  
 ㄴ. 개가 뼈를 먹는다. / 狗吃骨頭。 => 짐승  
 ㄷ. 물기를 먹은 잎새. / 沾了水汽的草叶 => 생물  
 ㄹ. 기름을 많이 먹는 자동차. / 這輛汽車太吃油 => 무생물

(17ㄱ~ㄹ)은 ‘먹다’와 ‘吃’의 기본 의미가 ‘사람->짐승->생물->무생물’의 경로를 거쳐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물론 기본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경우는 사람을 주어로 가진 경우이다. 그러나 주어가 사람이 아니더라도 ‘먹다’나 ‘吃’의 사용이 용인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짐승, 나아가 생물, 무생물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생물이나 무생물의 경우에는 이들의 동작이 다분히 의인화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吃’는 무생물로 확장하는 경로도 있고 앞에서 언급한 ‘흡수하다’는 공통된 의미가 있지만 ‘吃’만 가지는 의미도 있다. 즉 표『3』에서 제시한 ‘吃’의 ⑪의 의미항,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들어가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먹다’에서는 대응되는 의미가 없다.

- (18) 那艘船能吃水20米深。 \*그 배가 물을 20미터 정도 먹었다.  
 => 그 배는 물속에 20미터 정도 들어갈 수 있다.

(16ㄴ)의 경우는 ‘구체성→추상성’의 공통적 확장양상이다. 동사 ‘먹다’와 ‘吃’의 목적어는 일반적으로 입을 통해서 입 속에 들여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물질부터, 전이, 환유 등을 통한 추상적인 의미까지 확장된다.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 (19) ㄱ. 나는 만두를 먹는다. / 我吃水餃。  
 ㄴ. 그의 충격 먹은 표정. / 他吃驚的表情

(19ㄱ)은 기본의미로 ‘먹다’와 ‘吃’ 모두 지니는 뜻이고, (19ㄴ) ‘충격’은 직접 먹을 수 없는 추상적인 것 즉, 인간의 뱃속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지만, 은유의 과정을 거쳐,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겨 ‘먹다’와 ‘吃’의 목적어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6ㄷ)의 의미 확장 양상은 동사 ‘먹다’와 ‘吃’의 원형 의미 ‘입에서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뱃속에 들여보내다’는 물리적 동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기본 의미는 사회적 행위까지 확장되고 즉 ‘남의 물건이나 남의 것을 차지하거나 남에서 무엇을 받거나 하’는 의미까지 확장된다. 그리고 사회적 의미는 심리적 의미까지 확장된다. 다음 (20) 예문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 (20) ㄱ. 물리적: 사과를 먹다 / 吃蘋果  
 ㄴ. 사회적: 공금(뇌물)을 먹다 / 吃公款<sup>20)</sup>  
 남은 이익을 니가 먹어라 / 你吃剩下的利益。  
 ㄷ. 심리적: 마음을 먹다 / 決心  
 吃不准他是什么意思 / 그가 무슨 뜻인지 파악하지 못한다.

(20ㄱ~ㄷ)은 ‘먹다’와 ‘吃’의 기본 의미부터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확장 경로를 거쳐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20ㄱ)은 두 동사의 기본 의미로, ‘먹다’와 ‘吃’는 다 물리적 행위라고 할 수 있겠고, (20ㄴ)은 공금이나 뇌물이 사회성을 띠므로 사회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다만, ‘먹다’는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를 따로 분류할 수 있지만, ‘吃’는 한 가지 의미로만 분류된다.

20) 인간의 모든 행동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 특정한 사회의미를 지닌 것은 사회적 의미라고 간주한다.

(20ㄷ)는 ‘먹다’와 ‘吃’의 심리적의미를 나타내는 확장경로지만 두 동사가 같은 뜻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다음 예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먹다’는 물리적 행동이고, 이 행동을 통해서 ‘배가 부르다’는 만족감을 얻었다고 이해할 수 있고, (21ㄱ)에서 ‘어떤 등급을 차지하거나 점수를 따다’는 사회적인 만족감을 얻는 의미를 파생하고 중국어에서 ‘獲得에 해당한다. ‘吃’는 ‘어떤 등급을 차지하거나 점수를 따다’의 의미를 적용할 때, ‘안 좋은 점수를 따다’ 의미만 있고, 비유적인 수단으로 이 의미를 나타낸다. 심리적 확장 양성의 경우는 (21ㄴ, ㄴ')에서 보듯이, ‘먹다’와 ‘吃’는 이질적인 의미를 보인다.

(21) ㄱ. 체육 대회에서 우리 반이 일등을 먹었다.

\* 体育比賽中，我們班吃了第一。=> 体育比賽中，我們班得了第一。

ㄱ'. 這次考試吃了个鴨蛋。

\* 이번 시험에 0점을 먹었다. => 이번 시험에 0점을 받았다.

ㄴ. 이번에 꼭 시험을 통과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 吃心這次一定通過考試。=> 下決心這次一定通過考試。

ㄴ'. 我吃不准他到底是什么意思。

\* 그가 무슨 뜻인지 도저히 먹지 못했다. => 그가 무슨 의도인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다.

(16ㄷ)의 의미 확장 양상은, 일반적 의미인 ‘먹다’와 ‘吃’의 원형의 의미에서 출발하여, 은유의 과정을 거쳐 많은 비유적 의미를 가지게 되고, 더 나아가 비유적 의미를 가진, ‘먹다’와 ‘吃’가 목적어와 결합하여 관용어로 굳어진 경우이다. 다음 예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22) ㄱ. 일반성 : 국수를 먹다 / 吃面條

ㄴ. 비유성 : 여자를 먹다 / 吃女人豆腐

ㄷ. 관용성 : 국수를 먹다(결혼하다) / 吃醋

(22ㄱ~ㄴ)을 통해 ‘먹다’와 ‘吃’가 모두 일반적 의미로부터 비유성 의미, 관용성 의미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22ㄱ)은 모두 기본적인 의미인 ‘먹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22ㄴ)의 ‘여자를 먹다’는 실제로 여자를 먹는 것이 아니고, 여자의 정조를 취한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임을 알 수 있다. 중국어에서도 ‘吃女人豆腐’란 두부를 먹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성희롱하다’는 비유적인 의미로 쓰임을 알 수 있다. (22ㄷ)의 ‘국수를 먹다’는 ‘국수’라는 목적어와 결합하여 ‘결혼하다’라는 관용구로 굳어진 표현이며, 중국어 ‘吃醋’도 ‘식초를 먹다’는 것이 아니라, ‘남녀 간에 질투하다’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목적어 ‘식초’와 결합되어 하나의 관용구로 굳어진 것이다.

다른 예를 들면, ‘먹다’와 ‘吃’는 모두 ‘구기경기에서 점수를 잃다’와 ‘남의 것을 차지하다’는 비유적인 의미가 있다. 아래 예문 (23ㄱ,ㄴ)은 ‘남의 영토를 차지하다’는 뜻이고, (23ㄱ~ㄴ)은 ‘구기경기에서 점수를 잃다’는 의미이다.

(23) ㄱ. 남의 나라를 먹으려고 호시탐탐한 외국

ㄴ. 虎視眈眈地想吃掉其他國家的外國.

ㄱ'. 상대편에게 한골을 먹었다.

ㄴ'. 被對方吃了一球。

관용성은 두 나라의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많은 이질적 의미를 파생하기도 한다. ‘吃’는 환유나 은유를 거쳐 ‘어떤 사물에 의탁하여 삶을 영위해 나가다’ 혹은, 주로 먹는 장소나 도구와 함께 쓰여 ‘~에서 먹다’ 또는 ‘~으로 먹다’의 의미를 파생한다. ‘먹다’는 이런 용법이 없다. 다음 (24ㄱ)은 ‘吃’의 목적어가 환유적인 의미를 나타내어, 장소나, 도구의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24ㄴ)은 ‘삶을 영위하는 수단’을 비유하고, (24ㄷ)은 ‘飢’과 ‘餓’이 각각 ‘칭찬’과 ‘비평’을 비유하는 은유의 표현이다.

(24) ㄱ. 吃食堂

\*식당을 먹다 => 식당에서 사먹다.

- 吃大碗儿 \* 큰그릇을 먹다 => 큰 그릇의 밥을 먹다  
 ㄴ. 吃老本 \* 밑천을 먹다 => 밑천을 까먹다  
 ㄷ. 吃軟不吃硬, \* 연한 것을 먹고 딱딱한 것을 안 먹다  
 => 칭찬을 받고 비평을 받아들이지 않다.

(16b)은 필자가 제시한 ‘먹다’와 ‘吃’가 나타내는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먹다’와 ‘吃’는 모두 능동적 의미부터 피동적 의미까지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 (25) ㄱ. 능동성: 사과를 먹다 / 吃苹果  
 ㄴ. 피동성: 욕을 먹다 / 吃罵

(25ㄱ)에서 ‘사과를 먹다’는 먹는 사람이 능동적으로 동작을 행하는 것인 반면에, (25ㄴ) ‘욕을 먹다’와 ‘吃罵’도 피동적으로 어떤 행위를 당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다음은 구체적인 예문을 통해 ‘먹다’와 ‘吃’의 공통적 의미와 이질적 의미를 살펴해보도록 한다.

‘먹다’는 ‘욕, 매 같은 것을 맞다’의 의미와 ‘입거나, 당하다’는 의미를 따로 처리할 수 있다. 즉, 표『3』에서 제시한 ⑩, ⑫ ⑬ 세 가지 의미항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吃’는 ⑩ ‘당하거나 맞다’의 하나의 의미항으로 처리한다.<sup>21)</sup> (26)은 ‘먹다’와 ‘吃’의 공통적 의미이다.

- (26) ㄱ. 그는 하루 종일 욕만 먹었다. / 주먹 한 밤을 먹었다 / 충격 먹은 표정.  
 ㄴ. 他一天總是吃罵。 / 吃了一拳 / 吃惊的表情

21) ‘먹다’의 ⑬의미항은 ‘입거나 당하다’와 ‘吃’의 ⑩는 비슷하지만 실현된 의미가 똑같지 않다.

‘吃’의 ‘당하다, 받다’의 일부 의미는 ‘먹다’와도 다르다. (27)는 ‘吃’에만 있는 의미다.

- (27) ㄱ. 吃亏 \* 손해를 먹다 => 손해를 보다,  
ㄴ. 吃苦 \* 고생을 먹다 => 고생을 하다  
ㄷ. 她做這个工作有些吃力。 \* 이 일은 좀 힘을 먹는다.  
=> 이 일을 할 때 그녀는 좀 힘이 든다.

### 3.3. 이질적인 의미 확장 양상

상기 기술을 통해 ‘먹다’와 ‘吃’의 공통적 확장 양상을 검토해 보았고, 본 절에서는 이질적인 확장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6b)에서 ‘공간→시간’은 ‘먹다’만 적용할 수 있는 확장양상이다. ‘먹다’의 ‘음식물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속에 들여보내다’의 기본 의미는, 다른 차원에서 보면 먹는 동작이 공간적인 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간적 이동’에서 ‘시간의 누적’, ‘일정한 나이에 이르거나 나이를 더 하다’의 의미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吃’는 이런 확장양상이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28) 며칠 있으면 한살을 더 먹겠구나. \*再過几天你就又吃了一歲了。  
=> \*再過几天你就又長了一歲。

(16c)에서 자동사로서의 ‘먹다’가 지니는 의미를 ‘吃’는 대부분 지니지 않는다.

‘먹다’의 자동성은 이러한 ‘초점 조절의 인지적 능력’에 따라 행위의 주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러한 행위나 동작으로 인해 생기는 결과나 상태변화에 초점을 두는 방식에 의해 적절한 동기가 부여되어있다. 이처럼

인식의 주체와 객체의 비대칭성에 기초하여 하나의 장면을 둘 이상의 대안적 방식으로 개념화하는 것을 화자의 ‘주관화(subjectification)’라고 한다. 이러한 주관화 과정 속에는 우리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주체적인 인지 능력이 반영되어 있다.<sup>22)</sup> 이와 반대로 ‘吃’는 타동성만 보인다.

- (29) ㄱ. 이 고기에는 칼이 잘 안 먹는다. \*刀太鈍, 不好吃肉。=> 刀太鈍, 不好切肉。  
 ㄴ. 사과에 벌레가 많이 먹는다. \*苹果吃了好多虫子。=> 苹果上生了很多虫子。  
 ㄷ. 이번 공사는 비용이 많이 먹는다. \*這次工程吃很多錢。=> 這次工程要花費很多錢。  
 ㄹ. 옷감에 풀이 잘 먹는다. \*這衣料比較吃漿糊 => 布料上漿糊吸收很好。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29ㄱ) ‘먹다’의 의미는 ‘날이 있는 도구가 소재를 깎거나 자르거나 갈거나 하는 작용을 하다’이고, 이것은 중국어 ‘好切, 好割(잘 베다)’에 해당한다. (29ㄴ)의 ‘먹다’는 ‘벌레, 균 따위가 파 들어가거나 퍼지다’의 의미이고, 중국어 ‘生, 長(자라다, 퍼지다)’의 의미에 해당되며, (29ㄷ) ‘먹다’는 ‘돈이나 물자 따위가 들거나 쓰이다’의 의미로, 중국어 ‘花費(비용이 들다)’에 해당된다. (29ㄹ) ‘먹다’는 ‘흡수하다’의 의미이며, 중국어 ‘吸收’에 해당된다.

(16ㄸ)에서 제시한 ‘내용어→기능어’의 확장도 ‘먹다’에만 적용되는 양상이다. ‘먹다’는 본동사와 결합하여 보조동사로 쓰인다. 즉,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 내용어부터 의미가 약화되거나 보조적 의미를 담당하는 기능어 역할도 할 수 있는데, ‘吃’는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타동사이며, 다른 동사 뒤에 오고 통사구조를 형성할 수는 있지만 보조동사로 쓰일 수는 없다. (30ㄱ)의 ‘먹다’는 본 뜻이 많이 약화되고 보충적 의미만 나타내고, (30ㄴ)는 ‘먹다’는

22) 이종열, 『‘먹다’의 다의적 의미와 구문적 확장』

동사 ‘잇다’의 강도만 보충해 주고 원래의 뜻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 (30) ㄱ. 씹먹다 \* 用吃 => 運用
- ㄴ. 잊어먹다 \* 忘吃 => 忘記

## 4. 맺음말

인간은 자신이 처해 있는 공간(장소, 방향, 운동 등)의 이해나 풍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은유나 환유 등의 인지확장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인류 세계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사용빈도가 모두 높은 단어 ‘먹다’와 ‘吃’를 선별하여 두 동사의 인지확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먹다’와 ‘吃’의 사전적인 의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전에서 의 두 단어에 대한 분류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두 동사의 의미상의 특징을 바탕으로 의미의 재분류를 시도해 보았다.

인류는 비슷한 인지모델을 가지므로 한국어 ‘먹다’와 중국어 ‘吃’는 기본 의미가 같고 비슷한 확장경로와 확장양상도 보인다. 본문에서는 주로 임지룡(1996)의 의미확장 양상을 근거로 ‘먹다’와 ‘吃’의 확장양상을 살펴보았다. 임지룡(1996)이 제기한 의미 확장경로는 대상 어휘에 따라 비교적 동일한 확장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한국어 ‘먹다’와 ‘吃’의 대부분은 임지룡(1996)이 제시한 경로를 따라 의미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떤 의미의 확장은 위의 경로만으로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 이에 필자는 ‘먹다’와 ‘吃’의 의미 확장 양상을 ‘능동성→피동’, ‘내용어→기능어’, ‘타동성→자동성’ 등으로 더 보충해 기술해 보려고 했고, 이것이 바로 ‘먹다’와 ‘吃’에 적용될 수 있는 확장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먹다’와 ‘吃’는 비슷한 확장경로를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확장 의미를 따

지만 공통적 의미도 있고, 이질적 의미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두 나라 간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는 상기 연구를 통해 ‘떡다’와 ‘吃’의 기본 의미, ‘얻거나, 받다’, 피동적 의미 등은 같은 확장양상을 보이며, ‘吃’는 타동사로만 쓰일 수 있는 반면, ‘떡다’는 자동사와 보조동사도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떡다’는 주로 감정적인 측면의 의미를 많이 나타내며, ‘吃’는 은유를 통해 목적어에 따라 ‘吃大碗, 吃食堂, 吃得消, 吃不准’ 등처럼, 새로운 확장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다.

‘떡다’와 ‘吃’는 사회발전에 따라 앞으로 많은 의미가 부여되기 마련이기에, 그 확장된 의미를 문화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 보고자 한다. 본고의 ‘떡다’와 ‘吃’의 다의적인 확장양상에 대한 연구가 다른 동사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국문초록>

다의어에 대한 연구는 전통적으로 의미론 연구, 특히 사전 편찬학과 언어 교육에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리고 최근 인지언어학적 관점의 연구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의어 연구의 한 차원으로 한국어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다의어 ‘떡다’와 한어에서 같은 의미를 지닌 ‘吃’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인지언어학의 이론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벌어진 것이다.

우선, 본 연구에서 한국과 중국에서 가장 인증 받고 권위적인 사전에 등재되는 의미를 분석하여 다른 사전을 비교를 통해서 사전에 등재된 의미를 분석하여 보완적 개인 주장을 내세웠다. 사전 의미를 본인이 나름대로 배열 방식과 순서를 내세우고 도표로 ‘떡다’와 ‘吃’의 같은 의미와 이질적 의미를 보여 주었다.

사전적 의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지언어학의 다의어의 의미확장 양상(임지룡, 1996)을 ‘먹다’와 ‘吃’을 적용해서 분석을 시도했다. 그리고 ‘먹다’와 ‘吃’에 따로 적용하는 이론을 내세우고 같은 의미와 이질적 의미가 생기는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본문의 결론을 도출했다. 비슷한 문화를 가진 언어의 기본 어휘는 많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본 논문은 언어의 의미 연구, 특히 한국어와 중국어의 비교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주제어: 먹다, ‘吃’, 의미확장, 확장경로, 같은 의미, 이질적 의미

## <참고문헌>

- 가와가미 세이사꾸(1996), 『인지 언어학의 기초』, 한국문화사.
- 김재봉(1995), 「'먹다'의 의미연구」, 『우리 어문연구』 45.
- 김태자(1996), 「'먹다'의 담화분석에서의 의미관계」, 전주대학교.
- 陶紅印(2002), 「從'吃'看動詞論元結構動態特征」, 『語言研究』.
- 李貞姬(2004), 「漢韓“吃/먹다”詞義擴展認知研究」, 『中國言語研究』 24.
- 常敬宇(2009), 『漢語詞匯文化』, 北京大學出版社.
- 焉順才·姜信碩(2009), 「漢語“吃”和韓語“먹다”語義對比研究」, 『中國文化研究』.
- 이양혜(2002), 「'먹다'의 기능과 의미 변화」, 『한국어학』 제15집.
- 이정식(2003), 『다의어 발생론』, 역락 도서출판.
- 이종열(2005), 「'먹다'의 다의적 의미와 구문적 확장」, 『한국어학』 27.
- 임지룡(1992), 『국어의미론』, 탐출판사.
- 임지룡(1999), 『인지의미론』, 탐출판사.
- 解海江(2006), 『漢語義位“吃”詞義擴展的認知研究』, 烟台師範學院學報.
- 楊麗忠·段麗(2000), 『對漢語“吃+賓語”的認識』, 長治學院學報.
- 趙艷芳(1999), 『認知語言學概論』, 上海外語教育出版社.
- 馬瑞·呂昭君(2009), 『漢韓吃動作的概念隱喻』, 外語教育教學.

<Abstract>

## The contrast on the verb ‘먹다’ and ‘吃’ of semantic extension

Zhong, jie

This study focused on the Korean verb ‘먹다’ and Chinese verb ‘吃’ and concentrated on the meaning of ‘먹다’ in the Korean standard dictionary and the meaning of ‘吃’ in the modern Chinese dictionary. First we contrast the same meanings and different meanings of two words by listing forms. Then based on the theory of the cognitive linguistics, we searched and analyzed the mode of meaning expanding and found out the same mode expanding and the different mode expanding. The thesis can provide the new research methods of the polysemous word, and It will also be contributive to study the foreign language.

Key words: ‘먹다’, ‘吃’, the meaning of dictionary, the mode of expanding

종결

산동사범대학교 전임강사

중국 제남시 문화동로 88번지 산동사범대학교 한국어학과

전자우편: zhongjie77@hanmail.net

이 논문은 2011년 6월 24일에 투고되었으며, 2011년 7월 25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1년 8월 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